

SEOULX TOKYO

# SOLIDARITY

UNDER THE RAINBOW



TOKYO  
NO HATE  
no-hate.jp

영동대교  
Myeongdong



# SOLIDARITY

UNDER THE RAINBOW

2014년 6월, 서울 신촌.

내가 살고, 웃고, 울고, 슬퍼하고, 사랑하는 것을 더럽다고, 없어지라고  
헤이트 스피치를 토해내는 사람들. 분노했다. 계속 소리를 질렀다.  
나와 내 친구를 지워 없애려고 하는 이들을 향해.

5 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일까. 갑자기 퍼레이드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신없이 달려 갔다. 3,000 명의 사람들과 함께.

2014年6月、ソウル・シンチョン。

僕が生きて、笑って、泣いて、悲しんで、愛することに、  
汚らしい、いなくなれとヘイトスピーチを吐きまくる人々。  
怒った。怒鳴り続けた。僕と僕の友達を消し去ろうとするやつらに。

5時間ほど経ったころだろうか。急にパレードが逆の方向に動き出した。  
夢中で駆けて行った。真っ暗な道をパレードは進んだ。3,000人の人々と共に。

함께 현장을 지켜 보던 도쿄 레인보우 프라이드 공동 대표 야마가타  
씨가 문득 이렇게 말했다.  
"내년에는 레인보우 프라이드에 차량으로 참여하는 게 좋겠다"  
그곳에서 우리들의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一緒に現場を見守っていた東京レインボープライド共同代表の  
山縣さんがふとこう言った。  
「来年はレインボープライドでフロート出さなきゃな」  
そこから僕たちのプロジェクトが始まった。





2014년 2월 성소수자, 이성애자, 원전에 반대하는 사람들, 험한시위에 반대하는 사람들, 서로 배경이 다른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도쿄의 러시아 대사관 앞에 모였다. 러시아에서 시행된 "동성애 선전 금지법" (반동성애법)에 많은 성소수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 항의하기 위해.

그들의 대부분은 먼 나라에서 그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연대의 뜻을 나타내며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 자기 일도 아니고, 하물며 먼 나라의 일을 "자신의 일"로 받아 들여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2014년 2월, LGBT当事者、ヘテロ、反原発、ヘイトデモに対するカウンター、バックグラウンドの異なった100人以上もの人々が、東京のロシア大使館前に集まった。ロシアで施行された「同性愛宣伝禁止法」(反同性愛法)で、多くのLGBT当事者の人権が侵害されていることに対する抗議のために。

彼らの多くは、遠くの国で苦しむ人々に連帯の意を示し「あなたがたは一人じゃない」というメッセージを伝えようとした。自分のことでもなく、ましてや遠い国での出来事を「自分のこと」として受け止める人々が動き出した瞬間だった。

2015년 봄 도쿄의 시부야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동성 커플에 "결혼에 상당하는 관계"를 인정하는 파트너십증명서를 발행하기 위한 "동성 파트너십 조례"를 구의회에 제출했다.

2015년 春、東京の渋谷区は日本で初めて、同性カップルに「結婚に相当する関係」を認めるパートナーシップ証明書の発行するための「同性パートナーシップ条例」を議会に提出した。

그런데 시부야 구로 "가족제도가 무너지다" 라고 하는 1,000 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쇄도했다. 3 월 10 일에는 혐한시위를 자주 개최하는 재특회와 관계가 깊은 극우 단체 "힘내라 일본" 이 시부야에서 가두 선전 활동을 벌였다. 성소수자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로 가득차 차마 듣기 힘들 정도였다.

이에 대해 항의하고 나선 건 러시아 대사관 앞에 모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무지개 깃발을 들고 "증오를 그만둬라!" "조례 찬성!" 을 외치며 극우 단체의 증오 연설을 지워버리고자 맞섰다.

ところが、区には「家族制度が崩壊する」という内容の1,000通を超える反対意見が殺到した。3月10日には、ヘイトデモを行っている在特会と関係の深い極右団体「頑張れ日本」が、渋谷駅前で行った。LGBT当事者に対するヘイトスピーチ満載の聞くに堪えないものだった。

それに対して立ち上がったのは、ロシア大使館前に集まった人々だった。彼らは、レインボーフラッグを手に持ち「ヘイトをやめろ!」「条例賛成!」と叫び、極右団体のヘイトスピーチをかき消した。

결국 3 월 31 일 조례는 찬성 다수로 가결, 성립되었다.  
2015 년 도쿄 레인보우 프라이드는 사상 최대 규모 였다.

やがて3月31日、条例は賛成多数で可決、成立した。  
2015年の東京レインボープライドは、史上最大規模のものとなった。

그런데 퀘를 같이하여 한국으로부터 터무니 없는 이야기가 날아들었다. 퀴어문화축제, 서울 퀴어 퍼레이드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상대는 보수 기독교. 지난해 퍼레이드를 장시간에 걸쳐 방해한 이들이다. 또한 경찰도 퍼레이드에 대하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우리는 큰 결심을 할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맞서 일어났다.

しかし、軌を一にして、韓国からとんでもない話が飛び込んできた。ソウル・クィア・パレードが危機にひんしているというのだ。相手はキリスト教の保守プロテスタント。昨年のパレードを長時間に渡って妨害した連中だ。さらに、警察もパレードの禁止命令を出した。

僕たちは、特に気負うこともなく、自然に立ち上がった。



# SOLIDARITY

×  
액션·アクション

2015년 5월 31일, 그날도 사람의 존엄성을 철저히 깎아내리는 혐한시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차별을 허락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카운터에 왔다. 혐한시위가 떠난 후, 그들은 도톤보리 다리 계단에 앉아 손에 퀴어문화축제에 연대를 나타내는 플래카드를 가지고 사진을 찍었다.

연대의 마음이 담긴 그 사진에는 일본어(#ソウルクィアパレード 2015 応援)과 한국어(#서울퀴어퍼레이드 2015 응원)로 된 해시태그가 붙여져 트위터에 실려 바다를 건넜다.

그 움직임은 순식간에 일본 전국에 퍼져나갔다. 가와사키, 교토에서 혐한시위에 반대하는 사람들, 도쿄의 국회 앞에서 아베정권이 추진했던 안보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 반대하는 사람들 후쿠시마에서 지진, 쓰나미, 원전에 의한 피해와 싸우는 사람.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다양한 테마로 싸우는 사람들이 서울의 사람들과 마음을 함께했다.

어느새 한국의 신문에 의견 광고를 내고 싶다는 이야기가 떠올랐다. 이야기는 척척 진행되어 6월 13일 서울 신문에 게재되었다. 그 기사가 일본 언론에도 소개되어 퀴어문화축제를 지원하는 고리는 점점 커져 갔다.

2015년 5월 31일. 그날도 사람의 존엄성을徹底的に貶めるヘイトデモが行われていた。差別を許さない多くの人々がカウンターにやって来た。ヘイトデモが去った後、彼らは道頓堀橋の階段に座り、手にソウル・クィア・パレードへの連帯を示すプラカードを持ち、写真に取まった。

連帯の気持ちが込められたその写真には、日本語(#ソウルクィアパレード 2015 応援)と韓国語(#서울퀴어퍼레이드 2015 응원)のハッシュタグが付けられ、Twitterに乗せられ海を渡った。

その動きは瞬く間に日本全国に広がった。川崎、京都でヘイトデモに反対する人々、東京の国会前で与党が進めていた戦争法案に反対する人々、沖縄で米軍基地に反対する人々、福島で地震、津波、原発の災禍と闘う人々。様々なバックグラウンドを持ち、様々なテーマで闘う人々が、ソウルの人々と心を共にした。

やがて、韓国の新聞に意見広告を出したいという話が持ち上がった。話はトントン拍子で進み、6月13日のソウル新聞に掲載された。その記事が、日本のメディアにも取り上げられ、ソウルのパレードを支援する輪はますます大きくなっていった。



연대의 고리는 9500 킬로미터 나 떨어진 영국까지 도착했다. 영화 "프라이드"의 모델이 된 LGSM (Lesbians and gays support the miners)의 멤버가 퀴어문화축제의 퍼레이드 지원을 위해 일본의 멤버가 만든 피켓을 들고 런던 프라이드 퍼레이드를 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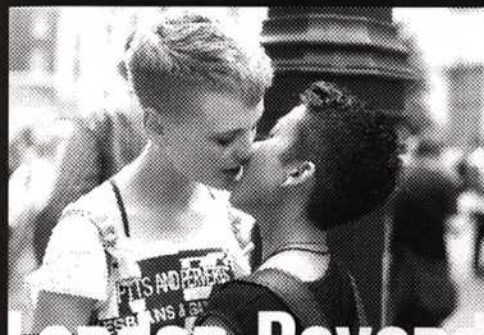
성소수자 입장에서 보면 먼 존재라고 생각하기 쉬운 탄광 노동자의 투쟁을 지원하는 실화를 그린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베푸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연대의 중요성을 깊이 느꼈다. 그리고 서울의 사람들과 함께 걷는 위해 일어 섰다.

그리고 6월 27일 퍼레이드를 맞이했다.

連帯の輪は、9500キロも離れたイギリスにまで届いた。映画「パレードへようこそ」のモデルとなった LGSM (Lesbians and gays support the miners)のメンバーが、ソウルのパレード支援のために日本のメンバーが作ったプラカードを持って、ロンドンのプライドパレードを歩いた。

LGBT가、遠く離れた存在と思いがちな炭鉱労働者の闘いを支援する実話を描いたこの映画を見た人々は、施しではなく、困難に直面した誰かと共にする連帯の大切さを深く感じ、ソウルの人々と共に歩くために立ち上がった。

そして、6月27日のパレードを迎えた。



# London, Beyond Hate

Jun Yokoyama Photo Exhibition

2016. 7.1-7.2 6pm to 9:30pm / Pistil, Seoul 용산구 이태원로26길 16-10

요코야마 준은 2015년 봄, 유학생생활을 보냈던 런던에서 카메라를 손에 들고 런던 프라이드 퍼레이드,그라임 뮤지션들, 그리고 극우인종차별주의자와 맞서싸우는 축구 서포터즈, 안티파 등 차별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했다. 그가 촬영한 그라임 뮤지션들의 사진은 잡지 "FACT"의 "2015년 최우수사진"으로 선정되었다. 요코야마는 현재, 해외 뮤직페스티벌의 사진작가로 활약하는 한편, 작년 런던 프라이드 퍼레이드에서는 영화 "프라이드"의 모델이 된 LGSM(탄광노동자를 지원하는 레즈비언과 게이)의 공식 사진작가로 촬영을 맡았다. 일본에서 혐한시위에 맞서싸우는 C.R.A.C(Counter-Racist Action Collective)의 멤버로 반차별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그는 안티파 축구 서포터즈인 "클럽턴 울트라즈"의 카메라맨을 맡고 있으며 런던 안티파 네트워크에 사진을 제공하고 있다. 도시에서 다양성이 사라지고 혐오가 소용돌이 치는 런던, 그 도시에서 일어서 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당신의 눈을 통하여 확인하십시오.

横山純は2015年春、留学先のロンドンでカメラを手に取り、ロンドン・プライド・パレード、グラ임・シーン、そして極右レイシストに対抗するサッカー・サポーター・グループや反ファシストたちなど路上でヘイトに抗う人たちの姿を記録した。彼が撮影したグラ임のミュージシャンたちの写真は「FACT」誌の「2015年最優秀写真」に選出された。横山は現在、海外の音楽フェスでもカメラマンとして活躍しているほか、昨年のロンドン・プライドでは、映画「パレードへようこそ」の主人公となったLGSM(炭鉱労働者を支援するレズビアンとゲイ)の公式カメラマンとして撮影を行った。C.R.A.C.のメンバーとして反レイシズム運動にも関わっている彼は、アンティファ・サッカー・サポーター「クラブトン・ウルトラズ」のカメラマンを務めたり、ロンドン・アンティファ・ネットワークにも写真を提供するなどしている。都市から多様性が失われヘイトが渦巻くロンドン。そこで立ち上がり、声を上げる人たちの姿を、あなたの目で確認してください。



**SOLIDARITY  
UNDER THE RAINBOW**

2016. 6.11

TOKYO NO HATE

Edit: Yusuke Ueda

Photo: Rody Shimazaki P1, P4, P10

Suguru Uchida P3

Yusuke Ueda P7

Takayuki Mishima P8

Jun Yokoyama P11, P12

Design: Yo Katami